

환율·가계부채 불안해도 내수진작으로 경기 먼저 살린다

한은 15년만에 기준금리 연속 인하...내년 성장률 1.9% 전망 트럼프 2기 경제 불확실성 커져...집값 등 인하 부작용 우려도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9월 미국의 '빅컷'(0.5% 인하) 등 외부 요인 및 물가 상승률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바 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 예상을 잇따라 내놨지만,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한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5.25%에서 2.00%로

여섯 차례 연속 인하한 이후 15년만이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하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의 우려에도, 향후 우리나라 경기 및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 및 성장, 가계부채,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

서 향후 금리 인하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불확실성이 커진 점에 주목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p 낮아진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0.2%p 낮은 1.9%로 전망했다. 더불어 오는 2026년 경제 성장률은 1.8%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여섯 번 뿐이다. 사실상 전쟁,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제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던 경우 외에는 경제 성장률이 2%를 웃돌았다는 뜻이다.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 집계한 올 3분기 성장률이 0.1%로 한은의 전망치(0.5%)를 크게 하회했고, 내수 회복세를 받치던 수출 역시 되려 0.4% 감소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확정으로, 관세 인상 및 이민자 추방 등 당선인의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경제 성장률 하향 예측의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 19 여파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등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이에 따라 한은은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추고,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경제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 판단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 525만원...빈부격차 더 커졌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5분위 60만원, 1분위 5만원 늘어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계층 모두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득 금액 자체가 고소득층이 큰 데다 소득 증가폭조차도 고소득층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3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올랐고, 사업소득은 98만 7000원으로 0.3%, 이전소득은 78만 4000원으로 7.7% 증가했다.

전반적인 국민 소득이 올랐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분위별 가계수치를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올 3분기 기준 1154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올랐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8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오르는데 그쳤다.

단순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새 60만원 이상 오를 때, 1분위 가구는 5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특히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사실상 사용 가능한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상승폭의 격차는 더 컸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98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근로

소득이 802만 4000원으로 5.0% 증가했고, 재산소득(11만 5000원·34.2%↑), 이전소득(80만 6000원·12.6%↑)도 늘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6.1% 증가한 96만 2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5만 4000원으로 3.4% 감소했다. 올 2분기 7.5% 감소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1분위 고령가구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3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3분기(5.5배)보다 0.14배 포인트 증가한 5.69배를 기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1인 당 평균 처분가능소득에 대해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zang@



농촌경제연구원, 한중일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27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원에서 '2024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을 개최했다. <사진>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KREI와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가 동북아시아 농업 및 농촌의 공동 문제 해결 협력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농정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전문가가 참석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각 참여 기업들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2개 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동북아 농업 및 농식품 시스템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민 KREI 박사는 'AgTech(농업 기술)과 농업의 미래'를 발표했고, 타카시 하야시 PRIMAFF 박사는 '일본의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전략'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유기 축산업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리우 리 IAED/CAAS 박사는 '중국 농식품 공급 조정 계획'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중국 측 사양동 후 소장의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용건 박사, 시호 타카키 박사, 구오강 왕 박사가 참여해 '농업 및 농식품 시스템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매장 리뉴얼 재오픈



호남지역 최초 입점 매장

광주신세계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매장이 29일 리뉴얼을 마치고 재오픈 했다. 티파니는 지난 2월 광주신세계 본관 1층에 호남 지역 최초 매장을 입점, 지역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매장을 리뉴얼하게 됐다.

리뉴얼 된 티파니 매장 외부는 1900년대 초반 티파니의 디자이너를 역임했던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가 특허를 낸 파브릴 유리의 다채로운 빛을 재현한 세로 방향의 도자기 타일로 꾸며졌다.

매장 내부는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아이 구조물과, 유기적인 형태의 쇼케이스 등으로 구성했다.

리뉴얼 오픈한 티파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

한 티파니만의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티파니락' (사진)과 '티파니하드웨어'가 꼽힌다. 티파니락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자물쇠 브로치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했다. 또 티파니 하드웨어는 티파니 브랜드가 탄생한 뉴욕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 등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끊임없는 회복력과 자유'의 의미를 담았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전 세계 3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럭셔리 주얼리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티파니가 고객들의 성원 덕분에 재단장하게 됐다"며 "브랜드에 걸맞은 내·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만큼 많은 고객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zang@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28일 "국내의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해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 CO 경보기 500여대 무상 설치

광주 운암동 우미1차 아파트

해양에너지는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1차 아파트에서 광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북부고객센터,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과 함께 일산화탄소(CO) 경보기 500여대 무상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겨울철 보일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16건 가운데 14

건(87.5%)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였다.

이에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0년 8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0년 일산화탄소 경보기 302대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60여대를 무상보급했다.

김종선 해양에너지 안전운영본부장은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을 통해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대불스마트그린산단 디지털전환 촉진 워크숍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8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에서 전남 대불스마트그린산단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영암군, 진흥원,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사업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대불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4개 사업이 설명회를 통해 사업들의 주요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주)티스퀘어아트라스 황규오 박사가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 및 스마트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둘째날에는 전남 대불산단 디지털전환 촉진사업의 발전방안 수립

을 위한 논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협의체 구성방안과 사업 간 협력 및 구축 인프라 활용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용 원장은 "지자체, 유관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워크숍이 전남 대불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023년부터 대불산단 내 조선 중대형 블록의 원활한 물류 운송 및 안전성 확보 등 스마트 물류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11월 기업경기 올 첫 소폭 반등

CBSI 86.0, 전월 대비 1.4P 상승

광주·전남지역 11월 중 기업 경기가 올해 처음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90대를 기록했던 광주·전남지역 기업심리지수(CBSI)가 지난 9-10월 연달아 대폭 하락해 80대를 기록하는 등 지역 기업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약간 회복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여전히 광주·전남 기업들의 업황 등은 하락을 반복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7일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 CBSI는 86.0으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구성 지수의 기여도 별로 보면 제품재고(+1.6p), 생산(+1.3p) 등의 증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비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2.7p 오른 94.2를 기록했다. 기여도 별로는 채산성(+1.8p), 매출(+1.1p), 자금사정(+0.8p)가 상승 주요 요인으로

급했다.

다만, 다음달 전망지수는 90.0으로 0.7p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및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실적 및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11월 중 제조업 분야의 업황BSI는 58로 전월보다 2p 상승했고, 다음달 전망치 역시 1p 오른 60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4.67 (+1.61)
↑ 코스닥	694.39 (+2.39)
↓ 금리(국고채 3년)	2.638 (-0.103)
↓ 환율(USD)	1395.50 (-1.50)